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

기도서 P. 235 A해

- 1독 (민 수 6, 22-27절)
- 2독 (갈 라 4, 4-7절)
- 복음 (루 가 2, 16-21절)

숲 정 이

발행인	법 석 규
인쇄인	이 수 현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1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5098)

■ 1978년도 사목교서 ■



교회 공동체의 발전을 다짐하는 해

새로운 희망을 열어주는 1978년을 맞이하여 교구대 모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님의 넘치는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난해를 「행동하는 믿음의 해」로 설정하고, 성령안에 일치하여 정진한 결과 여러모로 풍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첫째, 모든 성직자,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가 하나가 되어 6개의 성전 신축과 5개의 공소 강당을 봉헌함으로써 자치교구(自治敎區)의 긍지를 명백히 보여 주었음 뿐더러, 사제양성 후원사업을 위한 사순잔 동안의 성금 운동이 제1차연도 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둘째, 우리 모두는 배워 앞으로써만 “보다 나은 세계”를 이루어 마침내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너도 나도 앞장서 다양한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상당한 신앙 수준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셋째, 평신도들은 다양한 조직사회 안에서 자신들의 위치와 역할을 깨달아 적극적으로 교회안의 일치를 이루며 능동적인 활동상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특별히 버림받은 자와 가난한 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하는 인성회(仁成會)와, “지역사회에 봉사하고자”하는 약사회(藥師會)의 조직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괄목할만한 발전에 대하여 교구의 사목 책임을 맡은 나는 교형자매 여러분과 더불어 기쁨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불타오르는 우리의 의무는 지난해의 발전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마태오 5, 48)하신 주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보다 완전한 모습을 지니도록 해야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에 딸린 지체는 많지만 그 모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다른 모든 지체도 함께 아파하지 않겠습니까?”(고린토 전서 12, 12이하)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기뻐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어야 합니다. 특별히, 버림받고 고통을 받는 형제들과 그 아픔을 함께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언직을 수행하다가 지금도 육고를 치루고 있는 형제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그들과 주님 안에서 일치를 이루며 동참(同參)하기를 특별히 권장합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은 모든 일을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행제, 특히 자기 사목자(司牧者)들과 일치하여”(평신도 교령 3) 완수해 줄 것을 거듭 당부 합니다.

사실, 우리는 나뭇대로 지칠줄 모르고 달릴 길을 달렸읍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겨칠 줄 모르는 우리의 마음의 불길을 한데 모아 완전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구현해야 하는데 아직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공동체 안에서만 그 존재 가치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구성원의 일체감(一體感)과 소속감(所屬感)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횡(橫)적이고도 종(從)적인 연대성(連帶性) 안에서 발전되고 완성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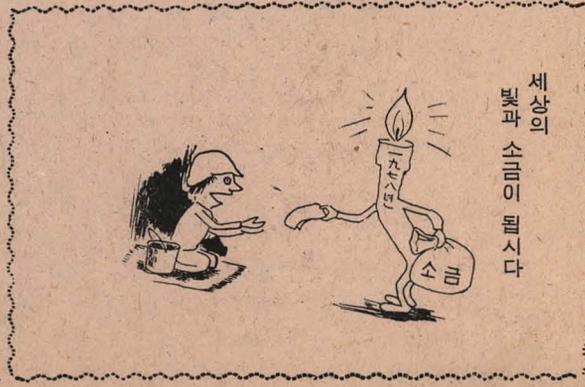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동경(憧憬)하던 때도 때때로 근시안적(近視眼的) 아집(我執)에 빠져 공동체의 보편성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함께 하기 보다는 외로이 하는 때”가 많으며, “전부보다는 일부” 밖에 거두지 못한 예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보다 풍성한 결실을 위하여,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하여 확고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시다!

이에 나는 금년을 「교회 공동체의 발전을 다짐하는 해」로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 방향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넓고 길고 높고 깊은 하느님의 신비”(에페소 3, 18)에 대한 차원높은 교육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육은 그 질과 양에 있어서 엄청난 비증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없는 성숙한 인간 공동체 형성이란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대 세계가 (2면에 계속)

숲 정 이 산책



(2) 순 정 이

(1면에서 계속)

요구하는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모든 성직자 수도자들은 물론이러니와 각계 각층의 평신도들까지도 계획된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현대 교회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에 평신도 지도자 교육을 통하여 “세속 생활 속에서 진복팔단(眞福八端)의 정신을 표현할 수”(평신도 교령 4)있고, 그러므로써 “현세 질서를 쇄신(刷新)할 수”(평신도 교령 7)있는 능력과 용기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날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교육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연구와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은 올바른 양심으로 도덕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것을 개인의 결단으로 긍정하며 더 깊이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교육되어야 합니다”(그리스도교적 교육에 관한 선언 1). 따라서 첫 교육자인 부모, 그리고 교회와 교회 학교는 이에 대해 각별한 책임을 느끼지 않으면 안됩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는 그 설립 목적을 재인식하여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청소년 교육에 대해 근본적이고도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당에서도 종교 등 학생 지도자 양성에 힘써야 할 것이며, 직업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깊은 배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학생들의 지도 문제에 대해서는 지성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권장하며 협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온전히 우리의 힘으로 봉헌된 성전들은 살아있는 역사속에 우리 전주교구 공동체의 숭고한 봉헌 정신을 영원히 영원히 기록해 할 것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신앙과 사랑이 나날이 드러워져야 하듯이 봉헌 정신 역시 계속 살아있어야 할 것이며 발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봉헌 정신은 성서의 가르침에 미치지 못했음을 자인하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성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땅에서 나는 곡식은 나무에 열리는 열매이든 땅에서 난 것의 심분의 일은 야훼의 것이니, 야훼께 바칠 거룩한 것이다. 소든 양이든 목자가 지팡이로 거느리는 모든 짐승의 심분의 일은 야훼께 거룩한 것으로 바쳐야 한다”(레위기 27, 30-32). 너희는 나를 속이면서도, 사람이 하느님을 속이 다니요? 어떻게 하느님을 속이겠습니까? 하는구나.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바친다고 하면서도, 그대로 바치지 않으니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열의 하나를 바칠 때, 조금도 덜지 말고 성전 공간에 가져다 놓어 내질 양식으로 쓰게 하여라. 그렇게 바치고 나서 내가 하늘 창고의 문을 열고 झा아 주는지 झा아 주지 않는지 두고 보아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말라기 3, 8-10).

이제 우리가 보다 성숙한 교회임을 자랑코자 한다면 좀더 적극적인 봉헌 실천이 따라야 하겠습니다. 10·1조의 봉헌 정신이 과감하게 표현될 때,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선교 활동에도 더욱 힘찬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굶주리시고 목마르시고 나그네되신

그리스도, 헐벗으시고 병드시고 감옥에 갇힌 주님, 곧 우리 형제 중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를 주님으로 대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마태오 25, 31-46).

둘째는 사목 행정상의 정비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최종 목적을 위하여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려면 모든 면에 있어서 질서가 유지되어야 하며(고린토 전서 14, 26-27.33)개체간에 상호 긴밀한 유대와 연락, 그리고 협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동체의 생명력은 바로 이런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장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보존된 기록과 긴밀하게 이루어진 문서 교환과 그 정리, 그리고 신속한 업무 처리에서 더욱 구현됨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교회 재산 관리의 합리화 문제 역시 아직은 미진한 상태에 있으니, 우리는 빠른 시일 안에 그동안 이루어져 왔던 재단 업무 전달 기구를 설치하고 교구내 모든 재산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교회 공동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용해야 하겠습니다(사제의 직무와 생활에 관한 교령 17).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이 이용하도록 창조하셨고, 따라서 창조된 재화는 사랑을 동반하는 정의(正義)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풍부히 나누어 주어”(사목헌장 69)하기 때문입니다.

인력 관리도 공동체 성장을 위하여 아주 중요한 일인 만큼 적재적소(適材適所) 원칙에 입각하여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소 및 가정 방문과 반회합은 더욱 열성적으로 실시해야 하겠습니다. 가정 방문과 반회합은 그리스도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기회에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형제임을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1978년을 알차게 살기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꼭 실천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의지로써 하느님 나라의 건설에 온갖 노력을 경주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1978년 1월 1일

전주교 전주 교구장 김재덕 주교

謹 賀 新 年

戊 午 元 旦

술평이 편집실

☆ 교고·대학 진학, 공무원 고시 전문 !!

이 리 경 문 학 원

◎이리역앞(서울 신탁은행4층) ☎ 5943

- 검정 고시반(78년4월,8월대비 매일검정·고입검정)
- 고입 종합반 대입 종합반
- 4·5급 공무원반(행정직, 교정직, 농조, 검찰)

☆ 제1차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목사회☆

성 령 쇄 신 세 미 나

일시 : 1978. 1. 17-21(4박 5일)

장소 : 전주 가톨릭 센터

신청은 1월 10일까지 50명(선착순)

회비 : 10,000원(사진대 포함)

적극적인 자세로 이 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세요!
(2차계획 미정, 이번기회 이용바람)

□ 평화의 날 메시지(요약) □

평화를 위해서라면 폭력을 거부하라!

본인은 은총의 1978년을 시작하면서 전세계와 인류를 향해 다시한번 "평화!"라고 인사드리고자 합니다.

평화는 아직 우리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합니다. 평화는 결코 꿈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평화는 대지와 하느님 섭리의 열매지만 우리 인간활동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본인은 사회생활에서 집단적 행동을 주는 지도자, 정치가, 사상가등 책임있는 모든이들에게 다시금 이 평화에 대하여 성실하게 반성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평화를 위하여 수많은 진실된 노력과 봉사를 아끼지 않아왔습니다. 이제 아무도 감히 수많은 인간을 살육하는 전쟁을 행복의 수단으로 동원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현대의 무력이 가공할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본인은 이 현대전의 부조리와 평화의 절대적 필요성을 있는 힘을 다해 외치려 합니다. 평화는 무력이나 폭력위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와 이성으로 자유와 정의의 성실하게 구현할때 확립됩니다. 오늘날 국제 기판들은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평화를 증진시키고 방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과 아울러 평화를 위협하는 폭력이 오늘날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폭력은 복잡한 양상을 띄고있어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양심이 병들고 부패했을때 사회적인 비판론이 탄생하고 소위 아름답고 진실된 것의 가치를 순수히 받아드리지 못하고 이를 도피하면서 올바른 것 대신에 이기적인 생각에 젖어 가는것을 찾는 풍조속에서 폭력이 탄생합니다. 폭력은 평화의 적입니다. 아직 우리는 전쟁에 대해서 벌리고 있는 투쟁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염원하는 평화는 단순히 외부적인 질서 유지라기 보다 인간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긍정입니다. 진실한 평화는 전쟁터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서나 다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평화를 원한다면 인간의 생명을 계획적으로 위협하는 모든 그릇된 시도를 배격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우리는 태어난 생명을 거스리는 모든 적대행위를 비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낙태를 금지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도록 관대당국에 호소해야 하겠습니까. 어머니의 태와 어린이의 요람이야말로 인간의 생명과 평화를 보호하고 건설해야할 제일차 방어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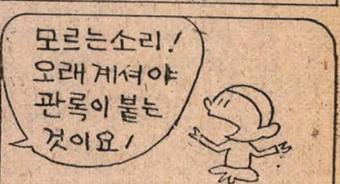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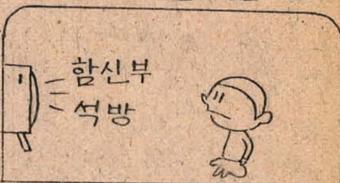
모든 어린이들에게도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싸우거나 주먹다짐으로 또는 화를 내거나 복수를 함으로써, 형제, 자매, 친구들보다 자기 자신이 힘세다는 것을 과시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마음은 헛되고 해로운 것입니다 정말로 힘센 사람이 되고 싶거든 마음과 생활전체를 통해서 힘을 길러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조종하고 남을 용서할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다룬 어린이와도 다시 빨리 친구가 되는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참된 그리스도 교인이 될수 있습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마십시오. 또 같은 또래의 친구들을 자기 자신과 비교해보고 자만심을 가저서는 안됩니다. 또 이기심이나 경멸하는 마음으로 남을 대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갈음을 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예수께서 수난전날 저녁 최후찬례 때 말씀하신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들에게 새 계명 하나를 주겠습니다. 서로 사랑 하십시오. 당신들이 서로 사랑하면 이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당신들이 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될 것입니다"(요한 13,34-35).

천애하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에게 나의 인사와 축복을 보냅니다. 우리의 맹세는 이것입니다. "폭력에는 아니오, 평화에는 예"

1977년 12월 8일, 바타칸에서, 교황 바오로 6세

요십이 (231) 김병오



(축)
합 격
예 비 고 사
성 십 여 고 448명
합 격 을 축 하 합 니 다

◇경윤기·분무기·전자등 탈곡기
트랙타·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열(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 찾아 주세요 □
이 신경 의과 의원
전주시 전동 2가 125(구대구집)
전화 ②-9793
원장 이 종 두(헨리프)

영어 특강 안내
문화 교화를 목적으로 주한 미 평화 봉사단원 초청 영어 강좌를 안내합니다.
1. 기간 1월 9(월)~2월 9(목)
(1개월간)
2. 강사 Pat. Ross(미 평화 봉사단원)
3. 장소 가톨릭 센터 사회관
4. 대상 중·고·대학생, 일반, 학교 영어교사 환영
5. 신청 1월 5일(목) 오후 6시까지
6. 수강료 중·고생(5천원), 대·일반(7천원)
7. 시간 매주 월-금요일
초급반...오전 10시-12시
중급반...오후 2시-4시
고급반...오후 7시반-9시반
※ 각반 인원은 20명으로 제한함
반 편성은 1차적으로 본인의 지원에 의하되 강사의 시험을 거쳐 재조정 확정됨

남 발 시 설 은
한국 온수 온돌
이리 구시장 ☎ 4940
전주 최정식 ☎ ②8342
군산 철파시장 ☎ 3032

□ 이전 개업 안내 □
표구, 병풍, 보료, 스킬
문화양행
하 정 희(엘리사벳)
팔팔로 주택은행 맞은편2-3170. 6123
교우님들의 많은 협조를...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신년 교례회 (오늘 11시반, 가톨릭 센터. ※회비...1,000원<점심과 기념품 제공>)
2. 제11차 남성 꾸르실로 (2일<월>오후 6시-5일<목>오후 8시, 가톨릭 센터, 회비 8,000원)
※오프닝 (2일 오후 6시), 마냐니마 (5일 오전 4시반), 프라우슬라 (5일 오후 6시반)
※선배 꾸르실리스타들은 꼭 참석해서 격려해주시고, 많은 빨랑가 부탁드립니다. ...개별통지 생략!
3. 중고등 학생 목상회 (6일<금> 오후 2시-8일<일>), 가톨릭 센터, 참가비 4,000원)
4. 성령 쇄신 세미나 (17일<화> 오후 4시-21일<토> 오후 1시, 가톨릭 센터, 참가비 10,000원)
※신청 마감...10일<화>, 선착순 50명 접수(성직자·수도자·평신도 포함)
5. 마인드 콘트롤 (9일<월>부터 군산, 12일<목>부터 전주 가톨릭 센터)
□ 인사이름 (77년 12월 27일자, 인수 인계일...1월 4일, 부임일...1월 7일까지)
김이환...<합열 주임→합열 여중고 전담>, 안복진...<성심 여중고→둔율동 주임>, 김진소<둔율동 주임→대 학생 지도결 학생회관장>, 서석구<진안 주임→합열 주임>, 박종상<진안 주임→성심 여중고>, 김윤섭<전 동 보좌→진안 주임>, 성태수<합열 보좌→순창 주임>, 소순형<팔마 보좌→한들 주임>, 김태윤<창인동 보 좌→원평 주임>, 이순성<진안 보좌→전동 제1보좌>
※새신부...현유복<팔마 보좌>, 유중환<전동 제2 보좌>, 범영배<중앙 제2 보좌>, 정태현<월평동 보좌>
조정오<창인동 보좌>
※부제...강덕행<교구청>, 김기수<둔율동>, 전중복<남원>, 박병준<고산>, 박성판<정읍>, 김성진<서학동>
이상섭<고창>
※새해 (오늘)부터 종이값 인상에 따라 술정이 대금도 부득이 인상합니다. 양해하시고 더욱 아껴주시기 바랍니다...전주 (7월50전), 그외지방 (7월)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서용복 보좌 신부 김진석 사도 회장 이복석

1. 월례회 : 프란치스코 3회-1일 오후 1시반, 강당 어머니 합창단-5일<목> 오전 10시반 성심 부녀회-6일<금> 오전 11시
 2. 태평 2동 오늘부터 복자성당으로 소속 됨
 3. 영세사진 찾아 가세요 (사무실)
 4. 범영배 (라파엘) 신부님 제2보좌 신부로, 7일<토>부임
 5. 구역장, 반장님을 달력 가져가세요 (사제관)
 6. 교적에 불일 사진 가져 오세요 (사무실)
- 성탄절 헌금 : 349,737원

4. 중고생 목상회 : 6~8일, 가톨릭센터
 5. 신용조합 이사회 : 9일<월> 오후 5시반
 6. 기증감사! 난로 톱밥 1구루마 (6천원)-오혜레나여자
- 성탄절 헌금 113,270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춘

1. 사도회 월례회 : 공식미사후
 2. 헌신부님 축하식 여러분의 협조로 무사히마쳤읍니다
 3. 1월달에는 반회합 없음
 4. 신용조합 월례회 : 10일 저녁 7시
- 성탄절 특별헌금 : 76,825원(전야), 33,000원(주일)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박용중 사도 회장 박용중

1.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로 연기
 2. 대학생 회원 모집 : 오늘 21시까지, 본당 사무실에 본당내 모든 대학생들의 가입 바랍니다
 3. 신년도 교부금 수입은 1월중으로 끝내주세요
 4. 성탄행사에 협조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성탄절 헌금 : 94,911원(전야), 61,275원(낮)
- 축 결 혼!
최원철(안드레아)군, 김복임(말다)양, 2일 11시

(순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전종근

1. 새해 첫 사도회 월례회 : 공식미사후, 사제관
2. 신년 교례식 : 오늘 오전 11시반, 가톨릭센터, 회비 1천원(중식 제공)
3. 중고생 목상회 : 6일<금> 오후 2시-8일 참가비 3,000원(본당 사무실에 접수)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용환

1. 본당 신자 총회 : 77년 결산·78년 예산 보고
 2. 감사합니다 : 성탄제대초 봉헌-장 데레사, 서말가리다, 제대꽃 봉헌-최엘리사벳, 엄모니카
 3. 판공성사를 못보신분 사무실에서 성사표 받아가세요
 4. 어린이 세례식 : 매일 첫째 금요일
 5. 신입하신 신축헌금 빠른 시일내 완납바람
 6. 미사시간 엄수·심신단체 가입·성경, 성가집 지참 합시다 -본당 신부님 강조 사항-
- 성탄절 헌금 : 115,681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김윤섭 사도 회장 유석중

1. 사도회 모임 : 오늘저녁 미사후(연중계획, 파티마 성당)
 2. 성화회 월례회 : 오늘 10시 미사후 (회합실 정리, 월례회연구)
 3. 김윤섭 신부님 진안 주임으로 이순성 신부님, 유중환 신부님 본당 보좌로
 4. 교도소 영세 : 6일<금> 오후 2시
 5. 병자 판공성사 : 다음주간(사무실에 연락바람)
 6. 장우회 새회장단 : 이현재, 전창현 성 가정회 새회장단 : 이영자, 박열형
 7. 레지오 연중 친목회 : 6일<금> 저녁 7시반
 8. 새 축일표 도착! (매일 성경퀴즈 기제)
 9. 이베로니카 할머니 별세 : 27일 오후 7시
 10. 유아세례 : 오늘 2시 미사후
- 성탄절 헌금 : 523,684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월례회 : 오늘 저녁 미사후, 각분과 정부위원장
2. 성우회 월례회 : 다음주 공식미사후, 김종술 형제 백
3. 봉헌금 봉투제 실시 오늘부터